

언어의 圖像性과 그 의미적 대응물에 대하여

—국어 사동문을 중심으로—

박 종 갑*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3. 언어와 인식의 관계 |
| 2. 언어와 실세계의 관계 | 1) 심리주의 의미론 |
| 1) 지시적 의미론과 진리조건 의미론 | 2) 언어와 인식의 대응 관계 |
| 2) 언어와 실세계의 대응 관계 | 4. 마무리 |

1. 들어가기

소쉬르의 영향 아래 언어학은 언어의 형식(linguistic form)과 의미가 자의적(arbitrary)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20C 중반에 이르러 언어형식과 의미기능 사이에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冊]이라는 개념과 /책/ 또는 /book/이라는 형식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 또는 상징적(symbolic)이다. [肆]라는 개념과 /가게/ 또는 /store/라는 형식 사이의 관계도 자의적이다. 그러나 [冊肆]라는 개념과 /책가게/ 또는 /book store/라는 형식 사이에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박승윤, 1990:85-86).

* 영남대학교 교수

언어형식의 각 구성요소들은 그것들이 표현하는 대상과 유사하지 않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그것들이 표현하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와 체계적으로 대응된다. [冊]이라는 대상과 /책/ 또는 /book/ 사이, 그리고 [肆]라는 대상과 /가게/ 또는 /store/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지만, 그것들의 복합체인 [冊肆]와 /책가게/ 또는 /book store/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시이저(Caesar)의 유명한 “Veni[왔노라], vidi[보았노라], vici[이겼노라]”는 말도 각 낱말의 층위에서는 필연성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배열 순서가 실제 사건의 순서와 일치하므로 필연성이 있다.

이와 같이 어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법적 측면에서는 언어형식과 의미기능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개척되어 왔으며, 담화·화용론적 언어학의 기본적인 가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¹⁾ 언어의 문법구조는 의사소통을 위한 의미기능에 의해 유발되고, 의미기능이나 의사소통기능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므로, 문법구조와 의미기능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나 개념이 도표(diagram)로 표시되는 것과 같은 도상적(iconic)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다(이효상, 1993).

본고는, 언어형식과 그 의미기능 사이에 도상적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언어형식이 도상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는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는 점에 대해 따져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어표현이 도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실세계인가 인식의 세계인가라는 점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언어와 실세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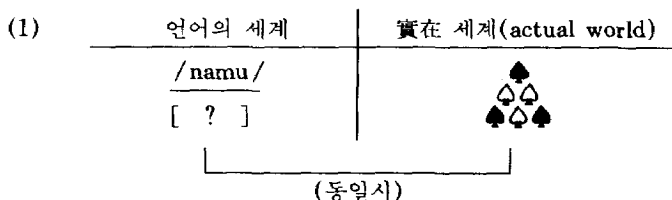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언어표현의 의미를 정의하는 데는 의미를 다른 무엇과 동

1) 언어의 도상적 특성은 Jakobson, R(1965)에 의해 처음으로 다루지기 시작하였으며(Asher, R. E., 1994:1629), Bolinger, D. (1977), Haiman, J. (1980, 1983, 1985)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다(이효상, 1993).

일시함으로써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방식(동일성론 identity theory)이 이용되었다. 이 때 의미와 동일시되는 대상, 즉, 언어 표현의 의미적 대응물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크게 ‘지시적 의미론’, ‘심리주의 의미론’의 두 계열로 나눌 수 있다.

1) 지시적 의미론과 진리조건 의미론

지시적 의미론에서는 언어표현(예를 들면,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그 표현이 지시(refer to)하는 실세계(actual world)에서의 대응물(object)과 동일시한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표현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킬 수 있는, 이 세계에서의 대응물인 나무들 전부가 될 수 있다.



지시적 의미론은 언어 표현의 의미를 언어 이외의 실세계 속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시적 의미론은 언어와 이 세계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 언어표현의 의미를 그것과 세계와의 대응관계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려고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이 이론은 진리조건 의미론의 기초가 된다.

진리조건 의미론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그 문장의 ‘진리조건’과 동일시한다. 다시 말하면,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이 참true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진리조건 의미론은 어떤 언어에 속하는 문장들 하나 하나가 어떤 상황(조건)에서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지를 밝혀 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한 문장이 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통적으로 ‘참’은 실제reality와의 일치를 뜻한다. 사실은 사실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말하는 것이 참말이며, 없는 것을 있다고, 또는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참이라는 것은 그것과 부합하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거짓은 그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930년대 유럽에서 유행한 논리실증주의 학파에서는 의미 있는 문장과 의미 없는 문장의 구분을 위해 검증의 원리를 내세우고, 모든 의미 있는 문장은 분석적 명제(analytic proposition)가 아니면 종합적 명제(synthetic proposition)이며, 이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했다. 분석적 명제는 동어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실 세계와의 대응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참·거짓이 논리적으로 결정되고, 종합적 명제는 세계의 외적 모습에 따라 진리치가 결정된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모든 경험과학에서의 진술은 종합적 명제로 구성되고, 논리학이나 수학과 같은 형식과학에서의 진술은 분석적 명제로 구성된다고 하고, 이에 비해, 과거의 형이상학적 철학은, 이러한 검증원리에 비추보면, 의미없는 문장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2) 서기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다.

앞의 (2)가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세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세계에서 ‘1988년과 서울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상황’, 즉, (2)의 문장이 지시하는 상황(사건)이 존재했다면, (2)의 문장은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이론 체계는,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언어 이외의 세계의 존재를 전제한다. 언어(문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 이외의 세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세계에서 문제의 문장이 지시하는 상황과 일치하는 상황이 존재하는가를 따져야 한다. 이와 같이 ‘참’을 어떠한 실제적 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진리관을 ‘對應說(correspondence theory)’이라고 한다.

2) 언어와 실세계의 대응 관계

언어형식과 의미 사이에 도상적 관계가 존재하고, 언어의 의미를 실세계와의 대응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면, 언어형식은 실세계와 도상적 관계에 있다는 뜻이 된다. 언어형식적 특징은 실세계의 어떤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 (3) (a) 철수는 어제 영화를 보고 목욕을 하였다.
(b) 철수는 어제 목욕을 하고 영화를 보았다.

철수가 영화를 보는 사건(E1)과 철수가 목욕을 하는 사건(E2)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면, 실세계에서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영화를 보고 나서 목욕을 한 경우와 목욕을 하고 나서 영화를 본 경우의 두 경우로 제한된다. (3a)는 <경우1>에, (3b)는 <경우2>에 대응됨은 자명하다.

- (4) (a) <경우1> (E1→E2) ⇔ 문장(a)
(b) <경우2> (E2→E1) ⇔ 문장(b)

연결어미 ‘-고’로 결합된 접속문 구성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드러낼 경우, 선행 사건은 선행절로 후행 사건은 후행절로 표현된다는 원칙을 가정할 수 있다.²⁾ 다음에서 보듯이 그와 같은 원칙을 어기면 비문이 된다: (5). 따라서 두 사건과 관련된 세계의 모습이 언어의 형식에 그대로(도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 (5) (a) *철수는 어제 영화를 보고 목욕을 하였는데, 목욕부터 했다.
(b) *철수는 어제 목욕을 하고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부터 봤다.

특정한 언어형식의 문법적 분리성은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명제의 개념적 독립성과 대응된다고 한다. 사동문을 예로 들 경우, Haiman, J. (1983: 799-800)에 따르면, 한 언어에 <V # Cause> 구성과 <V + cause> 구성의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중의 하나만 ‘사동’이 이뤄진 결

2) 이와 같은 원칙이 ‘-고’ 등위접속문 모두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다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과를 함의한다면, 그것은 <V # Cause> 구성이 아니라 <V + cause> 구성이 된다는 것이다.³⁾

- (6) (a) I caused the tree to fall. <V # Cause>
 (b) I felled the tree. <V + cause>
- (7) However, it didn't fall.
- (8) (a) *I caused the tree to fall. However, it didn't fall.
 (b) *I felled the tree. However, it didn't fall.

영어의 경우는 두 유형 모두 사동의 결과를 함의한다. 즉 위 (6)의 두 문장은 모두 (7)의 문장과 이어질 경우 모순이 되므로:(8), 나무가 쓰러뜨려졌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다음의 국어 사동문은 좀 다르다.⁴⁾ 우리말 예에서는 <V # Cause> 구성은 사동의 결과를 함의하지 않지만, <V + cause> 구성은 사동의 결과를 함의한다.⁵⁾ 다음에서 보듯이, (9a)와 (10)의 이음은 자연스럽게, (9b)와 (10)의 이음은 모순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 (9) (a) 그가 나에게 김치를 먹게 했으나 -<V # Cause>
 (b) 그가 나에게 김치를 먹였으나-<V + cause>
- (10) 내가 먹지 아니했다.
- (11) (a) 그가 나에게 김치를 먹게 했으나 내가 먹지 아니했다.
 (b) *그가 나에게 김치를 먹였으나 내가 먹지 아니했다.

이와 같은 직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말에서는 사동문이 <V # Cause> 구성인 경우에는 사역의 결과를 함의하지 않고, <V + cause> 구성인 경우에는 사역의 결과를 함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동문 (a)가 지시하는 세계에서는 '내'가 김치를 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비해, (b)는 반드시 '내가 김치를 먹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에만 쓰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V # Cause> 구성인 경우는 사역 행위와

3) #는 단어 경계를, +는 형태소 경계를 표시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4) 우리말 예는 Haiman, J. (1983:799)에서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옮겼다.

5) 피사역 행위의 의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사역 행위가 개념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V + cause> 구성인 경우에는 그 둘이 개념적으로 의존되어⁶⁾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개념적 독립성과 의존성은 두 유형의 사동문이 갖는 언어형식적 특성에 대응된다. <V # Cause> 구성에서의 ‘떡-’과 ‘하-’의 분리성과, <V + cause> 구성에서의 ‘떡-’과 ‘-이-’의 비분리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대응관계는 언어형식적 특징이 실세계의 특징을 도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는 일 예다.

3. 언어와 인식의 관계

1) 심리주의 의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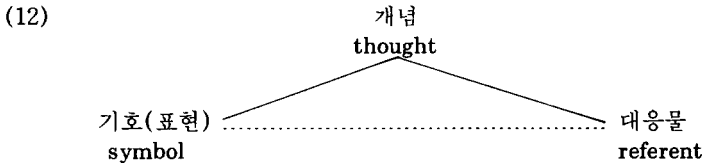
심리주의 의미론(唯心論的 의미론, 개념론적 의미론)에서는, 언어 표현의 의미를 그 표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음 속에서 그것과 관련시켜서 가질 수 있는 관념(idea)이나 개념(thought) 또는 심리적 영상(images)과 동일시한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머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영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한 생각이나 영상이 ‘고양이’의 의미라는 것이다.

앞의 지시적 의미론은 언어표현과, 그것이 가리킬 수 있는 이 세계에서 의 대응물이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데 비해, 여기서는 언어 표현과 실세계의 대응물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고,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관념이나 개념 또는 영상 등의 심리적 대응물(매개체)을 통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심리적 대응물을 의미와 동일시하는 관점을 취한다. 소쉬르(F. de Saussure), 오그덴과 리차드(Ogden & Richards)가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이다. 오그덴과 리차드는 단어나 문장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개체mental item를 통해서만 의미

6) Haiman, J. (1983:799)에서는 예를 들어 둘 이상의 명제 사이의 의존 관계를 함의 문제로 보고 있다. S1이 S2를 함의하면 S2는 S1에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를 가지게 된다고 했다.

로크(J. Locke) 등 전통적인 관념론자들은 ‘관념’을 *mental pictures* 또는 *images*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그덴과 리차드는 한 단어의 의미를 “a recurrent set of mental events”라고 정의한 바 있다. 오그덴과 리차드가 제시한, ‘의미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은 이와 같은 견해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기호와 대응물 사이의 점선은 양자가 직접 연결될 수 없음을 뜻한다. 기호와 개념은 각각 소쉬르의 시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é*)에 해당된다.



2) 언어와 인식의 대응 관계

언어 표현과 실세계의 대응물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고,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관념이나 개념 또는 영상 등의 심리적 대응물(매개체)을 통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가 표현하는 것은 실세계의 모습이 아니라, 실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내용이라는 것과 통한다. 동일한 세계와 관련된 기술이라도 그것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언어표현의 형식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와 인식이 대응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관점의 설명력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 언어와 실세계의 직접적 대응관계를 전제하는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들겠다. 국어 사동문의 두 유형이 의미가 같은가 다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의 쟁점이 된 적이 있다.

- (13) (a) 손이 세달된 아이에게 옷을 입혀었다.
 (b) 손이 세달된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예를 들어, Shibatani(1973)에서는 국어 사동문의 의미를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위 (a)와 같은 어휘적 사동문(短型사동문)은 행동자인 존이 아이의 옷을 직접 입혀준 것이므로 직접사동에, (b)와 같은 구문적 사동문(長型사동문)은 존이 아이가 옷을 입도록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작용만 한 것이므로 간접사동에 해당된다고 했다.⁷⁾

이상과 같은 의미 분석법은 국어 사동문이라는 언어표현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그것이 지시하는 실세계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두 유형의 사동문이 가리키는 실세계에서의 두 가지 사건의 차이가 곧 두 문장의 의미 차이라는 것이다. 문장a(短型)는 사건A를 지시하는 데 쓰이고, 문장b(長型)는 사건B를 지시하는 데 쓰이는데, 사건A와 사건B를 조사해 보니 이렇이러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사동문의 의미도 그와 같다고 보는 방식이다.

사동문의 의미에 대한 Shibatani(1973)의 주장에 반론을 펴고 있는 양인석(1974)의 주장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양인석은 다음의 두 문장이 모두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에 쓰일 수 있다고 하면서 동의적이라고 했다.

- (14) (a) 외부 손님을 먼저 태웁시다.
(b) 외부 손님을 먼저 타게 합시다.

위 (a)도 외부 손님을 억지로 끌거나 당겨서 태우자는 뜻이 아닐 것이고, 두 문장 모두 ‘외부손님이 먼저 탈 수 있도록 양보하자’는 정도의 뜻이므로 동일한 의미라는 주장이다. 위 두 문장 모두의 경우, ‘외부 손님이 자동차나 승강기에 타게 되는 방법과 과정’의 측면에서, 실제로 동일한 성격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앞의 두 문장의 의미로 한정하면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된다.

Shibatani(1973)와 양인석(1974)의 주장은 모두 언어와 실세계의 직

7) 어휘적 사동문 또는 短型 사동문은 앞의 <V + cause> 구성을, 구문적 사동문 또는 長型 사동문은 <V # Cause> 구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술의 편의상 ‘短型’과 ‘長型’이란 용어를 쓰겠다.

접적 대응관계를 전제하고 이뤄진 것이다. 특정한 두 사동문 중, 단형은 직접적인 사동의 사건을 지시하고, 장형은 간접적인 사동의 사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런 느낌을 주는 예를 들고, 두 유형의 사동문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주장이나, 동일한 성격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런 두 유형의 사동문을 예시하고, 두 문장의 의미가 동의라고 하는 주장은 모두 언어표현의 의미를 그것이 가리키는 실세계를 조사·분석하여 얻고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널리 이용되고 있다. Shibatani(1973)와 같은, 단형은 직접사동의, 장형은 간접사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에 반론을 제기한 모든 연구가 동일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다음은 단형이 간접사동의 의미로 쓰이고, 장형이 오히려 직접사동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김차균(1980)이 든 예이다.

- (15) (a) 대전에 있는 철수는 서울에 올라가지도 않고 손끝도 꿈쩍 안하고 영수를 죽였다. (短型 ⇔ 간접사동의 사건).
 (b) 철수는 영수를 칼로 찔러 죽게 했다. (長型 ⇔ 직접사동의 사건).

사동문의 도상적 특성을 다룰 때 이용되는 주요 개념 중의 하나가 '언어적 거리(linguistic distance)'라는 것인데, Haiman(1983:781-82)은 특정한 두 형태소 X와 Y 사이의 언어적 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척도로 산정될 수 있다고 했다.

- (16) ① X # A # Y
 ② X # Y
 ③ X + Y
 ④ Z

위의 (②-④)는 차례대로 분석적 표현(analytic expression), 교착적 표현(agglutinative expression), 그리고 통합적 표현(synthetic expression)이라 할 수 있는데, 형태소 X와 Y를 포함한 동일한 복합적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의 표현들이다. 만일 우리의 말이 단순한 선형적 구조이지만 하다면 특정한 두 표현 사이의 거리는 그들 사이에 놓인

음절의 수만으로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계층적 구조이기도 하므로 언어적 거리의 산정은 단순하지 않다.

위에서 ①은 X와 Y 사이에 다른 단어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이고, ②는 X와 Y가 바로 이어져 있으나 각각 독립된 단어인 경우이며, ③은 X와 Y가 의존형태소인 경우이다. 그리고, ④ 전체적 개념은 동일하나 제3의 형태로 표현된 것인데, 언어적 거리를 따지는 데는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된다. 따라서 X와 Y 사이의 언어적 거리는 ① 쪽으로 갈수록 멀고, ② 쪽으로 갈수록 가까운 것이 된다.

국어의 短型和 長型을 위의 유형과 관련시켜 보면, 단형은 ③에, 장형은 ②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7) (a) 엄마는 아이에게 옷을 입(X)+히(Y)었다:(③ X + Y)
 (b) 엄마는 아이에게 옷을 입게(X)#했다(Y):(② X # Y)

Haiman(1983:783)은 만약 어떤 언어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동문미(①-④)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되고, 또 사역행위와 피사역행위 사이의 개념적 거리의 차이로 구분된다면, 사역행위와 피사역행위 사이의 개념적 거리(conceptual distance)는 두 행위를 나타내는 형태들 사이의 언어적 거리에 대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X와 Y 사이의 언어적 거리는 ① 쪽으로 갈수록 멀고, ④ 쪽으로 갈수록 가까와 진다고 했다. 이를 국어에 적용할 경우 언어적 거리는, 상대적이지만, 단형은 짧고 장형은 긴 것이 된다. 따라서 사역행위와 피사역 행위 사이의 개념적 거리도 단형은 짧고 장형은 긴 것이 되어, 언어적 거리와 개념적 거리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형성된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사역행위와 피사역행위 사이의 개념적 거리가 멀거나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효상(1993:15)에서는, 단형인 (17a)는 피사역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저항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불가항력이며, 실제로 야기된 사건, 즉 옷이 아이에게 입혀지는 동작이 사역자인 엄마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여서, 원인·결과의 인과성과 관

련된 개념적 거리⁸⁾가 짧고, 즉 두 행위 사이의 인과성이 강하고, 장형인 (17b)는 사역자가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권위나 구두 명령 또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피사역자의 행위를 유발하는 사동행위이므로 피사역자의 자유 의지 및 저항의 여지가 훨씬 큰 경우여서, 그와 같은 인과성의 개념적 거리가 길며, 따라서 두 행위 사이의 인과성이 약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⁹⁾ 그리고 인과성이 강할수록 직접사동의 의미가 되고, 인과성이 약할수록 간접사동의 의미가 된다고 하고, 국어에서는 어휘적 사동문(단형)과 통사적 사동문(장형)이 대립하여 각각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을 나타내므로, 두 가지 유형 사동문의 의미적 차이가 언어 구조적 특성의 차이로 반영되는 바와 같은 도상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언어적 거리가 짧은 단형은 인과성의 개념적 거리가 짧은 직접사동의 의미에, 언어적 거리가 긴 장형은 인과성의 개념적 거리가 긴 간접사동의 의미에 각각 직접적으로 대응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도, 앞에서 제시한 (17)의 두 문장의 의미차이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사동은 직접적인 사동의 사건을, 간접사동은 간접적인 사동의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사동문에서 발견되는 도상성의 의미적 대응물을 실세계에서 찾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두 유형 사동문의 언어형식적 체계와 의미체계 사이에서 발견되는 도상성은 곧 사동문의 언어 구조적 특성과 실세계 사건의 특성 사이에 존재하는 직접적 대응관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의 예문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형인 (a)는 피사역자(아이)의 자발적인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저항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불가항력이며, 실제로 야기된 사건, 즉 옷이 아이에게 입혀지는 동작이 사역자인 엄마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이고, 장형인 (b)는 사역자(엄마)가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권위나 구두 명령 또는 간접적인

8) 이효상(1993)에서는 ‘관념적 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Haiman(1983)의 ‘conceptual distance’를 가리키는 것 같다. 본고에서는 이를 ‘개념적 거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9) 이효상(1993)에서는 본고에서 각각 단형/장형이라 일컫는 두 사동형과 ‘-시키다형 사동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사동문 구조를 비교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두 유형만 다룬다.

경로를 통해 피사역자의 행위를 유발하는 사동행위이므로 피사역자의 자유 의지 및 저항의 여지가 훨씬 크다'는 식의 설명 방식은 예문의 내용을 조금만 바꾸면 적용될 수 없는 방식이다. 당장 다음과 같은 사동문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해당되지 않는다.

- (18) (a)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혔다.
 (b)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게 했다.

위 두 문장도 그것이 지시하는, 실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지시하고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학칙 개정 등)를 했을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교복을 입게 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두 유형 모두 다 사역자가 피사역자에게 취한 행위는 동일한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사동문이 그 의미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실세계의 사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사건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취할 수 있다. 첫째는 국어 사동문의 두 유형은 유형에 따른 일관성 있는 의미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언어표현과 실세계가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기저적 가정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다.

언어표현은 실세계와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고, 우리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관념이나 개념 또는 심리적 영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는 심리주의 의미론의 전체가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어표현과 인식의 세계 사이의 대응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두 가지 유형의 사동문 전부는 실세계에서의 사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길에서 혼자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고 보자. 이 때 아이를 잘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19) (a) 우리 아인 내가 죽었어!
 (b) 우리 아인 내가 죽게 했어!

위의 두 문장이 실세계에서 일어난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놓고 말한 것이라면, 언어와 실세계가 직접적으로 대응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둘을 동의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의미차이는 포착될 수 없다. 그러나 두 문장은 구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형식적 차이가 있는 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이만(J. Haimann)이 언어의 도상성 이론을 체계화하기 이전에, 언어의 형식과 의미 또는 의사소통 및 담화기능 등을 임의적 관계로 보는 기존의 입장에 중대한 도전을 한 업적은 Bolinger(1977)이다. 그는 하나의 언어형식이 하나의 의미를, 하나의 의미가 하나의 언어형식을 가지는, 다시 말해서 언어형식과 의미와의 구조동일성 조건을 유지하는 언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 (20) (a) George came in the room and turned off the lights.
 (b) George came in the room and he turned off the lights.

앞의 두 영어 문장은 동의문으로 보아, 변형문법의 표준이론식으로 하면, 동일한 기저구조에서 동일주어삭제변형이 적용되면 (a)문장이, 대명사화변형이 적용되면 (b)문장이 유도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Bolinger(1977)는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그런 만큼 처음부터 서로 다른 기저구조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했다. (a)와 같이 후행절에 주어 없는 문장은 선·후행절이 가리키는 두 동작이 하나의 사건을, 방에 들어와 바로 불을 끄는 일련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고, (b)와 같이 후행절에 주어 있는 문장은 두 동작이, 그 사이에 시간적인 공백이 있을 수도 있는, 각각 독립된 사건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이효상, 1993).¹⁰⁾

10) 이와 같은 생각도 언어와 실세계의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a),(b) 두 문장의 차이는 실세계의 차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차이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1) (a) 철수는 어제 오후 고기를 잡고, 쇠뿔을 베었다.
 (b) 철수는 어제 오후 고기를 잡았고, 쇠뿔을 베었다.

(21)의 우리말 문장의 경우, (a)에는 과거시제표지 {있}이 후행문에만 있고, (b)에는 두 군데 다 있다. 이 때도 (a) 문장의 선·후행절 구조는 각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치된 것이고, (b)의 그것은 그와 같은 사건의 발생 순서와 무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¹¹⁾ 이와 같은 논의는 언어형식이 다르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다시 앞의 (19)의 문제로 돌아가자. 기술의 편의상 해당 예문을 한번 더 인용한다.

- (19) (a) 우리 아인 내가 죽었어!
 (b) 우리 아인 내가 죽게 했어!

두 문장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한 말이라면 실세계의 차이는 없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의 세계	實在 세계
(19) (a) (短型 사동문) 우리 아인 내가 죽었어	동일한 사건
(19) (b) (長型 사동문) 우리 아인 내가 죽게 했어	

11) 남기심 엮음(1994:20-21)에서는 (b)와 같은 문장은 두 사건의 시간적 순서와 무관하게 짜여진 것으로 보아 이른바 ‘공간적 나열’의 의미로만 쓰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선행절과 후행절이라는 구조적 차이는 각 사건의 시간적 순서와 무관할 수 없다고 본다. (a), (b)의 차이는 전자는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후자는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보는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시간적으로 차례 차례 발생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 동일한 실세계를 지시하는 두 사건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곧 실세계 그 자체는 동일하다. 더라도 그것에 대한 인식은 화자에 따라, 여러가지 언어외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과거 또는 완료를 표시하는 {있}이 통합됨으로써, 하나의 이미 이뤄진, 완료된 사건, 즉,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나게 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별도의 논문에서 추진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문장이 가리키는 실세계의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형식이 다른 만큼 그 의미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그 차이의 본질은 무엇인가? 즉, 두 문장의 구조적 차이는 무엇의 차이를 반영한 것인가? 그것은 화자의 인식세계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경우 어머니는 아이의 죽음에 자신이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후자의 경우는 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두 유형의 사동문은 그와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의 세계	인식의 세계	實在 세계
(19) (a) (短型 사동문) 우리 아인 내가 죽었어	'직접적인 살인' 으로 인식(화자)	동일한 사 건
(19) (b) (長型 사동문) 우리 아인 내가 죽게 죽었어	'간접적인 살인' 으로 인식(화자)	

이상의 내용은 短型和 長型은 각각 실세계에 존재하는 사건으로서의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요약된다. 그것은 동일한 실세계의 사건이라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인식의 차이가 언어구조화(encoding)화될 수 있다는 데 바탕을 둔 것이다.

국어 사동문의 단형과 장형의 언어구조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첫째, 단형은 X와 Y가 의존형태소이므로 단어의 층위에서는 분리불가능하고, 따라서 그 언어적 거리가 가까운 것이 되며, 둘째로, 장형은 X와 Y가 각각 단어이어서 분리 가능하고, 따라서 그 언어적 거리가 먼 것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은, 사역행위와 피사역행위 사이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2. 2)에서, 특정한 언어형식의 문법적 분리성은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명제의 개념적 독립성과 대응된다고 한 Haiman(1983:799-800)의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서로 붙어 있어 분리불가능는 것은 독립성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떨어져 있어 분리가능한 경우는 독립성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때의 '독립성'은 피사역행위가 사

역행위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 (22) (a)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
 (b) *선생님이 철수가 책을 읽혔다.

단형인 (a) 문장의 주어는 사역자인 '선생님'이다. 동어 반복적인 언급이지만, 서술어 '읽혔다'의 주체 또한 동일하다. (a)에는 사역자의 행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므로, 피사역자를 어떤 행위의 주체자로 보는 것은 힘들다. 그것은 (b)가 비문이 되는 데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단형에 서는 사역행위로부터 피사역행위가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3) (a)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게 했다.
 (b) 선생님이 철수가 책을 읽게 했다.

(23)에서처럼, 장형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사역행위 뿐만 아니라, 피사역행위도 하나의 주체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그것은 (b)가 정문이 되는 것과 대응된다. X와 Y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문법구조적 특성에 기반을 두어, 피사역행위가 사역행위로부터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단형은 사역행위와 피사역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어렵다. 그 둘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어, 사역의 행위 안에 피사역행위의 수행이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형은 그렇지 않다. 다음의 문장들이 의미상의 정형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와 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 (24) (a) *남편이 아내를 자리에 앉혔는데, 아내는 앉지 않았다.
 (b) 남편이 아내를 자리에 앉게 했는데, 아내는 앉지 않았다.
 (25) (a) *나는 그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그 세탁소는 옷을 맡지 않았다.
 (b) 나는 그 세탁소에 옷을 맡게 했는데, 그 세탁소는 옷을 맡지 않았다.

사역행위로부터 피사역행위를 분리시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은 피사역행위가 수행되는 데 사역행위가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

식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피사역행위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피사역행위의 수행에 사역행위가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곧 보다 직접적인 사동으로 인식하느냐 간접적인 사동으로 인식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요약하면, 국어 사동문의 단형과 장형의 언어구조적 차이는 인식세계에서의 직·간접적인 사동의 차이를 도상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언급해야 할 점은, 앞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이러한 직·간접사동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세계의 사건과 연계시켜 보면 그 대응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문장은 정형적인 것으로 보인다.

(26) 나는 그를 분명히 죽였는데, 그는 살아 있었다.

위 문장은 두 가지 유형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선행절은 인식의 세계를, 후행절은 실세계를 기술하고 있다. '내가 그의 죽음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인식의 세계),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살아 있었다(실세계)'는 것이다. 위 문장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와 같은 연유에서 기인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 (27)과 같은 문장도 꿈꿈이 따져 보면 정문일 수 있다는 주장(김차균, 1980:17)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27) 철수가 영수를 죽였으나, 영수는 죽지 않았다.

우리가 실세계에 대해 언급할 때, 실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함은 여러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랑하다>는 표현을 보자. 이 세계에서 이뤄지는 구체적인 남녀간의 사랑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수많은 남녀 사이에 이뤄졌고 이뤄지고 있는 '관계'로서의 사랑의 질적인 차이가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와 같은 수많은 관계를 하나의 동일한 범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들 모두의 관계를 동일한 언어형식인 '사랑하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해야 할 대상의 수만큼 무한정 언어의 어휘를 늘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언어의 본질적 특성이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언어가 도상적으로 반영하는 의미적 대응물이 인식의 세계임을 논구해 보았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적 표현과 실세계의 대응이 매우 분명하여, 매개체로서의 인식세계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먼저, 실세계와의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예를 보자. 다음의 (a)는 소대장(사역자)이 부하(피사역자)를 직접 죽인 사건을, (b)는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 (28) (a) 소대장은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하를 권총으로 죽였다.
 (b) 소대장은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하에게 권총을 주어 죽게 했다.

이런 예처럼 언어와 실세계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그와 같은 실세계의 차이를 화자가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두 유형의 문장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언어와 인식의 대응관계라는 하나의 틀로 통일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문장의 구조적 차이는 실세계의 차이를 직접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두 가지 세계에 대한 각각의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언어표현1 ⇔ 인식1 ⇔ 세계1(사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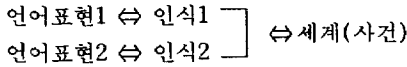
언어표현2 ⇔ 인식2 ⇔ 세계2(사건2)

다음으로, 인식과의 대응관계를 전제로 하여 설명한 바 있는 예를 다시 검토해 보자. 기술의 편위상 앞의 (19)를 다시 인용한다.

- (29) (a) 우리 아인 내가 죽었어!
 (b) 우리 아인 내가 죽게 했어!

위 두 문장이 동일한 사건에 접한 동일한 화자의 발화라면, 두 문장의 구조적 차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마무리

본고는, 언어형식과 그 의미기능 사이에 도상적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언어형식이 도상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는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는 점에 대해 따져 보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어표현이 실세계와 직접적으로 대응한다고 보는 관점과, 인식의 세계를 거쳐 실세계와 대응한다고 보는 관점을 소개하고, 후자의 관점이 언어의 도상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더 유효함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주로 국어 사동문의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첫째 경우는 단형 사동문과 장형 사동문이라는 두 유형의 구조적 차이가 실세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와 관련된 것이고, 둘째 경우는 두 유형의 사동문이 동일한 실세계를 가리키고 있어 실세계에서의 차이를 지적할 수 없는 예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한 것은 후자의 경우였다. 실세계의 차이가 없다면, 단형과 장형이라는 언어구조적 차이는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동일한 세계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차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두 가지 사동문의 구조적 차이가 실세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그와 같은 서로 다른 세계를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면, 두 유형의 사동문의 구조적 차이는 그러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參 考 文 獻

- 박승운(1990). <기능문법론>. 서울:한신문화사. 제4장.
- 박종갑(1984). 국어 사동문의 의미특성. <어문학>,44·45(합권). 한국어문학회.
- 박종갑(1988). 언어의 철학적 연구와 언어학적 연구. <용언어문논집>,4.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박종갑(1996).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 의미론>. 박이정출판사.
- 이효상(1993). 담화·화용론적 언어분석과 국어연구의 새 방향. <주시경학보>,11. 서울:탑출판사.
- Asher, R. E. (eds.)(1994):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2. Oxford: Pergamon Press.
- Haiman, John(1980). The Iconicity of Grammar: Isomorphism and Motivation. *Language*, 56-3.
- Haiman, John(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4.
- Haiman, John(ed.)(1985).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John Benjamins.
- Newmeyer, f. J. (1992). Iconicity and Generative Grammar. *Language*, 68-4.